

월간 증 현

'79 6 월호



교회의 4 대기능

= 전도와 교육을 중심으로 =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가지 기능(functions)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4 가지만을 손꼽는다고 하면 아마도 그것은 예배와 전도와 교육, 그리고 친교(fellowship)가 될 것이다. 이상의 기능들은 다같이 중요한 것들이요 그 중 한가지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예배 없는 교회, 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전도하지 아니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생각할 수 없다. 뿐 만 아니라 교육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교회로서의 성장을 기대 할수 없는 교회이다. 또한 성도의 교제, 이를 코이노니아(Koinonia) 라고 한다. 이것 역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능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6월은 우리 교회가 설정한 특별전도의 달이다. 교회가 수년전에 이달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정하고 온 교회가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이다. 전도란 꼭 6월에만 해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특별히 이달은 이웃전도에 온 교회가 힘을 기울이는 달로 정한 것이다. 이미 전도위원회에서는 총동원 전도 운동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본지를 통하여서도 소개된 바 있다. 여기에는 온 성도가 다 참여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어느 한 부서의 운동이 아니다. 전교회적인 행사이다.

바라기는 이번 6월 한달 동안에 한사람이 적어도 한사람 이상씩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한다. (눅14:23)

6월은 우리 교회가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훈련하는 달이기도 하다. 해마다 실시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번 제 5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은 의미가 깊다. 그것은 첫째로 예년 같으면 강원도, 충청남북도 그리고 경기도를 그 참가 대상으로 하여 실시했거니와 금년에는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는 점이다. 이미 훈련신청자의 참가 신청서가 접수 마감되었거니와 지난 5월 31일 현재로 신청 마감된 인원은 125명이나 되고 있다.

참가 신청한 분들 가운데에는 목사님이 40여명이나 되고 강도사가 10여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도사이다. 모두가 다 농어촌교회에서 담임하며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이시다. 이들 농어촌에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서로의 목회정보를 교환하며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토의를 하며 또한 설정된 교과목들에 대한교육, 훈련을 우리교회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자량이요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고 느껴 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금년부터는 훈련장소가 충청기도원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우리 충청기도원은 성도들의 기도의 동산인 동시에 신앙무장, 영적훈련의 도장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다. 6월의 이 훈련을 출발점으로 하여 6월과 7월 그리고 8월까지 빈틈없는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것이다. 15부 주일학교가 저마다의 훈련계획을 마련하여 준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교회에 속한 모든 속회들이 기도원을 이용, 신앙의 수련을 받게 될 것이다. 마28:19-20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가운데에는 전도와 교육의 사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말씀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해야 하거니와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강원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미 강원도 수개처에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설립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교역자를 파송한 바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며 금년대로 강원도 지역에 열곳의 개척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제 1차 목표이다. 그러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농어촌교회에서 수고하시는 교역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훈련케 하는 일도 병행하여 힘써 나가야 하는 것이다.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 3대 목표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 차 례 *

제 7 권 제66호 월간 충현

권 두 언 교회의 4대 기능	주 간 · 2
이달의말씀 숨지않는 일생을 살자	김창인 · 4
지상특강 농어촌 교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김종택 · 6

특집 / 총동원 전도의 달

① 전도의총사령탑-전도위원회	편집실 · 10
② 북한선교의동향-특공대훈련	이 손 · 13
③ 군인전도의현장-군종사병훈련	김중석 · 14

특집 / 6.25를 맞으며

6.25와 한국교회	김차생 · 16
편집실칼럼 전도하는 사람들	오태웅 · 18
찬송가감상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김중석 · 18
책 소개 머리를 써서 살아라	유재일 · 19
도서 정보 5월중 구입한 도서	도서실 · 19
가독교윤리 신약의 윤리관 (2)	김하진 · 20
주간지만나 시편 59 · 60편	김창인 · 26
선교월보 선교지 소식	해외복음선교회 · 22
구역소식 5월중 새교우, 결혼, 별세명단	편집실 · 24
구역장수첩 예배모범 (3)	김재창 · 25
성경통신 5월호정답	· 24
주교소식	· 27
교회소식	· 30
편집하고나서	편집실 · 34
이렇게 답한다 마귀는 존재하는지	백성룡 · 35
실로암못가에서	· 36

표지설명 : 총동원 전도의 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전도에 힘쓰는 충현 교인이여야 할 것이다. 유년부 어린이들이 활짝 웃으며 노랑전도를 나가고 있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나의
가힘이
주이되
신앙
사랑하
나와
여다



숨지 않는 일생을 살자

성경 / 창 3:8~13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환난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기위 주님의 보호와 지도를 받으면서 준비했다가, 주님이 일하라 명령하실 때에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회 놓치지 않고, 선한 일을 잘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지구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만가지 것을 먹고 입고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눈이 보시는 곳 뿐입니다.

1. 하나님 앞에 범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며 주신 에덴동산에서 말 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조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런지 말 할 수 없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원수 악마와 더불어 하나님 모르게 자기네끼리 의논을 하며 하나님을 반역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숲속에서 멀면서 숨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누구나 무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숨을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을 때 잘못을 고했으면 좋았으면만 오 히려 그 잘못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와 뱀 때문이라고 책임을 여자와 하나님께 씌웠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악마와 더불어 하나님을 반역할 것을 계획하고 숨는 것은 잘못입니다. 죄를 범한 것도 잘못이고 숨는 것은 더 무서운 잘못입니다. 죄를 범하면 가슴치며 울어야 하지 숨으면 안됩니다. 숨었다가 체포되면 잘못했다고 울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서는 안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마음을 안 가지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볼까 보아 숨어서 돈에 대한, 혹은 남녀관계의 더러운 음욕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고 계획하고, 범하고, 범한 다음 또 숨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행동입니다.

2. 사람 앞에 범죄

부모 모르게 범죄한 자식이 선생 모르게 죄를 범할 계획을 세우고, 또 죄를 범하고 죄를 숨겨 두는 것,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숨기는 것입니다. 계획도 숨고 진행도 숨고 범한 다음에도 숨고, 숨고 숨고 숨는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에게에는 숨길 수가 있는 지 모르겠으나 죄를 범하고 숨기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땅 위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거짓말로 숨기고 외식으로 숨기고 그리고 드러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핑계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한 두번, 하루, 열흘, 일년 기한이 무사하게 넘어갈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숨기는 일은 사람 앞에도 기한이 길지는 못합니다. 드러나 집니다. 사람 앞에도 반드시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죄를 숨어서 계획하고 범하고 또 숨겨 놓는 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숨기려는 것은 하나님을 업수이 여기는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놓고도 복을 달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반역적이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도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보다 미련쟁이로 삼는 미련한 행동이니 그것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교만해서 우리의 잘못을 숨겨 두는 일은 마침내 드러나는 날이 오고 드러나는 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망신당할 부끄러운 일이 되고 또 망신만 아니고 고생을 당해야 되는 고통이 오고 한걸음 더 나아가 마음에 지옥,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이 뒤따라 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숨어서 죄를 계획하고 숨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숨겨 두는 숨는 생활은 살지 맙시다. 단지 하나님의

빛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 죄와 상관없는 생활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만가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 것, 고맙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보급하여 주시고 똑바로 살기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하는 생활을 하여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까지 바쳐 헌신하는 생활을 합시다.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명령대로 충성하는구나’ 하시며 몸에는 건강, 생각에는 지혜 재산에는 부요를 주시면서 일을 시키나니 선한 일 하면 개인과 교회와 국가가 백배나 더 축복을 받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품 안에 숨읍시다. 앞서 말씀 드린 숨는 것은 하나님 품 밖에서 숨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품 안에서 겸손히 숨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험합니다. 험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품안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나는 하나님 품에 숨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권세 그늘에 숨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수단 방법에 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숨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악마와 천사의 모양을 하고 우리를 나오라고 꼬일찌라도 하나님 품 안을 떠나지 말고 영원한 주소로 정하고 삽시다. 하나님 품 밖으로는 나가면 죽읍니다. 돈보다 육신의 생명이 귀하고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이 더 귀한데 돈 때문에 하나님 품 안을 떠나고 죄를 숨어서 범하면 임시로는 수지가 맞을런지는 몰라도 영육이 아울러 회복할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품 안에서 겸손히 선한 일을 준비합시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중 나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선한 일 행할 준비를 합시다.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너무나 큰 일이고 어렵고 위태로운 일이었으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했더니 성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천하에 겁쟁이 검창인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의 명령을 주셨는데 너무나 큰 일이고 어렵고 위태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시작했으며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가 순종해

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어렵고 위태로운 일도 많읍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성공을 주십니다.

충현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새 성전 건축, 천국일꾼 키우는 일, 해외복음선교의 사명, 북한 선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순종만 하면 성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숨어서 선한 일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성공하는 선물을 꼭 받읍니다. 세상은 아무리 따져 보아도 위태로운 세상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험악한 시국 속에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밖에서 숨어서 욕심 재울 계획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범하고 거짓말하여 하나님을 업수이 여기는 교만쟁이, 하나님을 밟아버리려는 반역죄를 범하지 말고 잘못 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준비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하나님만 믿고 위태롭고 크고 어려운 일도 진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준비했다가 명령하시면 일할랍니까? 아니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무서워 숨으시렵니까? 원컨대 하나님 무서워서 숨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서 준비하고 세상 무서워서 떨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세상을 향해 싸우려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충성을 다해 봅시다. 하나님 품 밖에서 범죄하고 그 죄를 숨겨두는 바보가 되지 말고 잘못된 것은 가슴치며 울고 하나님 품 안에 숨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양식을 먹으면서 준비했다가 하나님 명령하시면 일하고 싸우고 백두산을 향해 전진해 봅시다. 한번 죽는 것이 인생인데 바로 살고 힘있게 일하고 거룩하게 죽읍시다.

어둠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이제 밤이 오기 전에 일하다가 주 앞에 가서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매주일 3부예배실황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아세아방송 1566KHZ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농어촌 교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김 중 택 목사

(부목사·전도위원회지도)

오늘의 농어촌 교회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며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오래 전 부터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묘책을 제시 했으며 지금 까지도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만큼 이 문제는 어렵고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인 줄 안다.

1. 농어촌 교회가 문제점들

농어촌 교회의 문제점들이 많지만 그것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지방적인 것이다

지방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경제적인 빈곤 문제다.

우리나라는 아직 도시에 비해 농어촌 경제 사정은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 전국 경제의 70~8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그 나머지의 것을 가지고 농어촌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교회의 경제사정도 마찬가지인 현재 농어촌에 산재해 있는 우리 교회의 지교회 헌금을 보면 월평균 9만원정도이며 1년의 총예산이 70만원정도의 교회도 있는 것이다. 그런 형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처지에서 교회를 위한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더우기 교회당의 시설이나 교육 재료의 구입등은 고사하고 교역자의 생활비 마저 충당 못하는 교회가 너무도 많다.

둘째로 농어촌 주민들이 낮은 지식 수준도 교회 발전에 문제로 손꼽을 수가 있다.

그들 중에는 아직도 문맹자들이 있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예배를 방해하며 교인들은 비교적 성경지식도 낮으며 믿음도 자라나지 못하여 이단의 유혹에 전혀 무방비 상태인 것 같다.

셋째로 농어촌 주민들의 보수성(保守性) 또는 정체성(停滯性)도 교회 발전에 큰 저해요소로 되어 있다.

그들은 좀처럼 새로운 것을 받아 드리려 하지 않으며 무조건 옛 것을 붙들고 고집하고 있다. 이들의 보수성을 보면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풍습적인 것이다. 그 지방 또는 그 동리에서 옛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풍습에 사로 잡혀 있으며 ②기성종교나 무속적인 미신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믿는 것이 제일인 줄 알고 만일 그것을 불신하거나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게되면 큰 벌을 받는 줄 알고 있으며 그 종교의 진리성 여부 보다도 습관화 되어 있고 무속적인 공포감 마저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종교에 대해 용납할 여지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교회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타적으로 적극 반대를 한다.

2) 교회적인 것이다.

농어촌 교회의 문제점은 사실 교회밖에 보다 작 교회 안에 많이 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병신도 지도자의 문제다.

인간사회의 모든 탄핵이 그렇겠지만 더욱 교회의 성패는 그 지도자의 사람됨과 역량



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로 서 있으면 교회가 착실하게 자랄 수 있으며 만일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없거나 바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유익은 고사하고 교회 성장에 암적인 존재가 된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다. 또는 내가 이교회에 제일 오래 믿은 “고참”이라면서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텃세만 내 세우게 된다. 그들은 후진을 키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이 과감한 개혁이나 교회안의 사업을 하려하면 돕기는 커녕 저해 하는 현상을 도시에서도 볼 수 있겠으나 농어촌 교회에는 더 많은 고질적인 현상인 것 같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교회는 자랄 수 없고 10년~20년이 지나도 발전 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젊고 똑똑한 교인들이 도시 진출 문제가 있다.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 문제는 우리나라 만의 현상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로 현대를 인구의 도시집중 시대라고 까지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과 농어촌을 버리고 도시로 진출 하는데 더욱 젊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수가 더 많다. 이런 현상은 교회도 마찬가지다. 농어촌 교역자가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서 바른 교인 하나를 키워 놓으면 얼마 있다 그는 곧 도시로 빠져 나가고 만다. 어느 교역자의 말을 빌리면 그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거의 도시로 빠져 나간다고 한다. 농촌교회는 마치 도시와 농촌사이의 교량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만일 교회가 잘못해서 농어촌 청년들을 도시로 이끄는 매개체가 되거나 교량역할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일 것이다. 교회는 순수한 복음만 전할뿐 세상말을 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 도시로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교역자의 말은 교회가 농어촌 청년들을 도시로 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 그 만큼 농어촌 교인들이 도시로 많이 진출해 나갈 것으로 하는 말인줄 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촌교회에서는 안타깝고 서운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워서 도시로 내어 보내는 부모님의 심정의 긍지를 가지고 일하며 하나님께 감사 해야 할 것 같다.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 보면서 안타까워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 선교하는 심정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전도하면서 충성해야 할 것이다.

3) 교역자 문제이다.

첫째 농어촌 교회의 교역자는 대개 전도사로 충당하며 더욱 약한 교회는 거의 신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인 것이다. 그들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인 이역의 일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마저 책임을 져야 하니 그 수고로움은 형언할 수가 없다. 그들 중에는 생활하기가 편하고 통학거리라도 가까운 곳이 생기면 섬기던 교회를 사면하고 부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신학을 졸업하면 농촌을 버리고 도시교회로 나오는 경향이 많으니 농촌 교회는 ‘교인들의 훈련소이며 교역자의 양성소’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게 된다. 심지어 어떤

○○○...도시 경제에 비해 농어촌 경제 사정은 너무도 뒤떨어져 있다. 전국 경제의 70-8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 지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월 평균 헌금액이 9 만원정도, 1 년의 총 예산이 70만원 정도의 교회도 있는 것이다. 그런 형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처지에서 교회를 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힘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에서는 교역자를 1년에 두세번 켜거나 새로 맞이 해야하는 서글픈 현상마저 생기게 된다.

둘째 농어촌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교역자 자신이 일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을, 신학교 동창들 중에 도시에 개척을 해서 몇년 사이에 수백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룩했거나 도시에 있는 교역자와 비교하여 열등의식을 느껴 후퇴하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비해 그 일의 능률이 적게 나타 난다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될것이다. 교회는 부흥이 안되는지 몰라도 (양적으로 혹은 숫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할 일을 다한 것이며 또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 하고 감사하며 열심으로 일해야 할 것이다.

더욱 농어촌의 교역자들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도시 교역자들은 그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셈인 것이다. 사도바울의 말씀과 같이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고 했으니 나도 생명을 구원 하는 일에 한 몫을 크게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 교역자와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임을 자각하고 감사 하며 보람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이다.

2. 해결책

우리는 농어촌 문제점을 몇가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 그 해결책이 무엇이겠는가?

1) 지방적인 것의 관여이다.

먼저 그 지방적인 빈곤 무지 보수성에 대해서 교역자가 관여하여 빈곤과 무지의 퇴치 사업에 힘쓸 수도 있겠으나 그런일에 너무 치중하다가 목회자 본연의 사명까지 잊고 몰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목회자는 신령한 일에 바빠야 하고 사실 많은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2) 교회적인 것

농어촌 교회 평신도 지도자 문제는 참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교역자가 자주 바뀌게 되므로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평신도 지도자의 영향력은 심히크기 때문이다. 그들이 잘하면 교회가 부흥 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으나 만일 잘못하여 실수 한다면 부흥의 길이 막히게 되고 고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교역자는 그들을 잘 훈련 시키며 기도해 주며 말씀으로 교훈을 하여 교역자 자신이 바른 생활을 하여 인격적인 감화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교역자의 인격적인 감화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전에 감리교 신학생들이 서울 시내 교회청년 300 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 중에 이러한 것이 있었다. 즉 어떠한 지도자를 요구 하는가? 고 물었더니 인격자라고 한 사람이 125명, 신앙가 라고한 사람이 86명, 활동가 37명 학자 12명 이었다. 그들이 지도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 교역자, 전도사의 지도를 잘 따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교역자 위에 군림 하려는 경향 마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기도와 말씀과 인격적인 감화로 그들을 지도 하며 키워 나갈때 교회 부흥의 저해 요소가 제거 되어 부흥의 길이 트이게 될 것이다.

3) 교역자 문제

교역자는 어느 교회에 가든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소한 3년 이상은 시무 해야 할 것이다. 더욱 농어촌 교회에서는 이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역 생활이란 것은

○○○...농어촌 교역자가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서 바른 교인 하나를 키워 놓으면 얼마 있다 그는 곧 도시로 빠져 나가고 만다. 어느 교역자의 말을 빌면 '그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거의 도시로 빠져 나갑니다. '고 한다 농촌교회는 마치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물질을 추구 하는 일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 하는 일이니 평안을 찾기 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니 모든 고생을 각오하고 그 교회를 봉사해야 할 것이다. 교역자의 이동이 너무 심하니 교인들이 보는 눈이 이상해 진다. 교역자를 볼때 저 분이 이 교회에 얼마나 일할 것인가? 라고 보지 않고 얼마나 계시다가 언제 떠나실까? 하고 바라본다.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으며 어떻게 교회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농어촌 교회의 교역자들은 비교적 시간의 여유가 많다. 그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해서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되어야 하며 바울의 아라비아 사막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맑은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황금 같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또 열심으로 심방과 전도를 해야 할 것이다. 어느 목회자가 간증하시길 '내가 전에 지방에 있을 때에 이만큼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곳에서도 크게 성공 했을 것이며 지금 보다 훨씬 더 내가 컸을 것이다'라고 했다.

교회의 부흥여부는 전적으로 그 교역자와 지도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열심으로 잘하면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교역자가 실의에 차서 나태하고 잘못하면 교회 부흥은 생각할 수가 없다.

3. 제언

이제 마지막으로 몇가지 제언을 해 본다.

1)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농어촌 교회와의 자매결연을 맺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농어촌에 있는 교회를 한교회 이상씩 맡아서 피차 기도해 주며 목회정보도 서로 교환 하며 서로 협력할 때 힘이 될 줄 안다.

2) 농어촌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의 자녀 교육 문제를 위하여 대 도시에 계속사를 세워서 운영해 준다면 짐을 덜어 주는 일이 되며 그들은 마음놓고 교회 봉사에 힘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이미 다 성장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바친 몸이니 이대로가 좋으나 자라 나는 자식들은 뒤떨어진 사람으로 그냥 둘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

3) 교역자의 농어촌 시무를 의무화 해서 3 년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목사 안수를 하는 어떤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상의 것들은 타교회 적으로 또는 어떤 교단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점들이 있으나 우리도 한가지 한가지 시도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

농어촌교회 파송전도 안내

주제 :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파송기간 : 1979년 8월 13-18일 (5박 6일)

대상지역 : 8 개처, 본교회의 지교회

◇◇◇…총동원 전도의 달을 맞아 우리 교회의 전도 활동을 소개한다. 현재 우리 교회가 중점을 두 …◇◇◇
 ◇◇◇…고 있는 전도의 방향 및 정책등을 살펴 우리의 힘을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 우리 교회의 …◇◇◇
 ◇◇◇…전도 활동의 이모 저모를 살펴 보았다. …◇◇◇

1. 1976 - 전도위원회 발족

1953년 교회 설립 초기의 우리 교회전도 활동은 주로 젊은이들이 핵심을 이루어 왔다. 23년이 지난 1979년의 전도 활동은 놀라우리 만큼 확대 성장하게 되었다. 양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해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전도활동의 확대 발전에 따라 조직도 변화되어 1954년의 제직회의 한 부서로 전도부를 두었던 것이 1973년부터는 당회 직속기구로 강화되어 남·여전도회와 해외전도 및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소 전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발시켜 교회 전도사업의 체계를 세우며 각국 전도사업에 대한 전략연구를 하고 보다 효율적인 전도를 주관해 왔었다.

연구·조정·지휘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산발적인 활동처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전도위원회」가 발족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는 물론 나아가서는 각 지회의 특수성에 맞는 새로운 전도방향과 전도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데 큰 의의를 갖게 되었다.

2. 전도위원회의 구성

전도위원회의 초대위원장 김광철장로에 이어 77년부터 최석주장로가 계속 위원장의 직을 맡고 있고 김종택목사가 전체 지도를 맡고 있다. 금년에는 위원회 산하의 5개 분과에 각각 지도교역자를 배치하여 보다 강화된 조직이 되었다. 각 분과의 업무 사항은

특집 / 총동원 전도의 달에

① 전도의 총 사령탑 / 전도위원회

쉬임없는 활동 속에

＝강원도 개척전도·군전도가 금년에 중점사업＝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교회내의 일관성 있는 전도활동 및 단체를 통괄하여 연구적인면에서도 추진력을 가진 강력한 매체가 필요하게되자 1975년 12월14일 당회는 우리 교회의 국내외 전도사업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그것은 바로 새로이「전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업무내용과 부서별 담당자의 인선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 교회 설립 초기부터 우리 교회는 전도를 힘써으로써 교회가 부흥되었고 부흥된 우리교회는 다시 전도에 주력하는 교회와 교회 부흥과의 상관관계를 잘 유지시켜 왔다. 실제 전도활동의 집행부서로써 교회 전도부를 비롯하여 남·여전도회, 해외복음선교회 및 주일학교 각부 면려회에서 조직된 전도부등이 각각 세나를 대로의 특수성을 살려 전도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각각의 이들을 하나로 집약시켜 우리 교회의 총력을 쏟기에는 미흡하였고 전체를통괄하여

1) 기획분과

교회내 외의 전도활동 및 단체의 현황 파악, 전도에 대한 자료수집, 국내외전도의 방향제시의 일을 한다. 전도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분과라 할 수 있다.

2) 외지분과

해외전도를 통괄하며 교회 자체로서 해외전도 계획을 수립하여 선교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일을 하므로 해외 선교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특히 교회의 입장을 해외 선교부에서 실천할 수 있게 방향제시를 해주며 선교사가 파송되기까지의 제의를 맡아 본다.

3) 내지분과

국내전도에 대한 계획 및 실천의 업무와 지교회 운영 및 지도 지방 전도단체의 회원등의 일을 한다.

4) 특수분과

군대·병원·기업·학원·문서·전도등의 특별한 지역에 대한 전도업무를 담당하는 분과로 교회내 각

전도단체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총동원분과

교회내 교인의 전도훈련 및 각종 전도행사와 각종 전도단체의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장: 최석주장로〉



〈지도: 김종택목사〉

3. 전도위원회의 활동

전도위원회는 금년에 들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교회내의 전도활동을 통괄할 수 있었던 점과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금년도 목회방침에 따라 강원도 지역 개척전도와 군전도에 중점을 두어 활동을 전개하며 그외의 수시로 들어 오는 보조, 지원등의 처리업무가 쌓여 있다.

1) 교회내 전도 활동의 총괄

각부서별(남, 여전도회, 산업전도회, 청년부, 대학부)로 산발적으로 하던 전도 활동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게 된 점은 앞으로의 전도 전략과 행정, 정보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전도위원회는 각부서의 전도 활동을 매월 보고 받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 매월 전도위원회에 보고되는 각 부의 보고는

① 남전도회 - 군부대 「월간충현」 및 테이프 발송현황

② 여전도회 - 강남시립병원 봉사, 성동구치소 전도

③ 산업전도회 - 직장내배인도

④ 청년부 - 영등포교도소 상담전도(매주월요일)

중부서 유치장전도(매주목요일)

명동노방전도(매주화요일)다

전도훈련으로 여호수아전도대 기도회(매주수요일)

⑤ 대학부: 매주 병원전도(4개팀)

이와같은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며 교회내의 전도 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2) 강원도지역 개척전도

그동안 서울근교를 위시하여 경기, 충청북지역의 개척교회를 설립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강원도 지역으로 개척 전도지역을 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는 서울 근교에 교회를 설립하면 2-3년내에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는 성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러기에 다른 교회에서도 서울을 중심한 외곽 지역에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간벽지의 오지에 전혀 복음이 들어 가 보지 못한 수많은 지역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전도위원회는 금년도에는 강원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척전도 할 것을 정했다.

그러나 이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혀 복음이 들어 가지 않은 지역을 개척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연초에 3개팀을 편성하여 강원도 정선군·인제군·영월군을 답사하기 시작했다. 이와같은 답사와 연구끝에 4km 이내에 100호 이상의 주민이 있는 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기도하며 애쓰던 중 지난 5월 6일, 5월16일, 6월 6일, 세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



〈지난 5월 9일에 있었던 신현교회(청년부 담당)의 창립예배 모습이다〉

설립일	교 회 명	위 치	교역자	담당부서
5/9	신현교회	정선군정읍면신월리	강성천 전도사	청 년 부
5/16	서현교회	인제군기린면서리	박장덕 전도사	남전도회
6/6	부현교회	인제군남부면부평리	최동천 전도사	이 욕 녀 사

이와같이 전혀 복음이 들어 가지 않은 곳에 새롭게 복음이 들어 가게 됨으로 민족복음화 운동의 새로운 일면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금년내에 강원도 지역에 10곳의 개척교회를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강원도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는 외에도 아직 우리 교회에서 지원 개척하고 있는 교회는

교 회 명	소 재 지	개척년도	교역자	담당부서
화 정 교 회	경남, 화정	1975	강대희	전도위원회
태평중앙교회	충남, 대전	1976	조후연	전도위원회
영 광 교 회	경기, 성남	1976	김성환	전도위원회
금 천 교 회	경기, 여주	1975	원치연	남전도회
장 락 교 회	경기, 가평	1973	정기용	남전도회
매 현 교 회	충북, 단양	1977		여전도회
광 영 교 회	경기, 시흥	1979	최동호	여전도회

3) 군전도

또한 강원도 지역 개척전도와 함께 금년도에 중점적인 사업은 군전도이다. ○○사단에 계속적으로 연결을 가져 온 우리 교회는 매년 군종사병훈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군종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금년도 지난 5월에 실시한 군종사병훈련에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군종활동 최일선에 있는 군종요원을 훈련시켜 그들의 사명감을 일깨우고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줌으로 군종활동에 유효유역활을 하게 만드는 군종사병훈련의 결과를 지난해 가을의 3,500명 합동세례식이나 금년 6월말경에 가질 1,500명 합동세례식등에서 잘 볼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전도위원회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타사단의 군종사병과 아울러 일년에 몇 차례의 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호간에 사정이 허락되면 군종사병들을 초청하여 우리 기도원에서 훈련시켜 보내는 방법도 구상 중에 있다.

이와같은 금년도 전도위원회의 중점사업외에도 전도위원회는 많은 다른 일들이 있다. 매년 여름마다 농어촌에 파송하는 전도대, 그의 훈련등을 앞세우고 오늘날도 전도위원회에서는 열심히 뛰고 있다.

「전도 안하는 교회, 전도 안하는 교인」이 교회일수가 없고 교인일수가 없는 것임을 모두가 잘 알기에 전도위원회의 모든 활동, 일들이 하나 하나 절실하고 중요하게 생각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하고 있는 일과 그 의미를 명확히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아낌없이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소서

감 경 자

주여

나의 삶의 길에서

협한 태산이라 할찌라도

움켜지기를 기도드리지 않으렵니다.

그 고갯길을 넘어 힘있게 달려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무거운 바위가 가로 놓여 있어도 멈추어 돌아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돌을 발판으로 주어진 나의 길을 끝까지 하소서.

오늘 나의 길에서

평탄하고 넓은 길 편히 가기를 바라 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험하고 좁은 길일찌라도

주와 함께

더욱 깊은 믿음으로 가게 하소서.

② 북한선교의 동향 / 특공대 훈련

특공대 훈련 실시

—제 1 기, 7월16일부터 충현기도원에서—

분단된 조국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 북한선교회에서 1979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특수 차량을 이용한 농어촌 차량 선교사업, 그리고 무교회 지역에 투입, 개척전도하고 미지립교회에 투입하여 자립교회로 성장할수 있도록 하는 지원선교, 그리고 자립교회를 자극, 유도하여 개척전도및 선교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선교, 그리고 하나님께서 휴전선을 건너 주실때 북녘 땅에 올라가 잃은 양배들을 복음으로 다시 찾고 허물어진 성전을 새로이 재건하며 부흥회, 개척전도 할수 있는 헌신자를 기르기 위한 북한선교 특공대 훈련원 개설등 1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군단 위이상 북한선교회 조직및 성회인도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많은 사업중 이번 제 1기 북한선교 특공대 훈련 단기코스의 개설을 잠자는 한국교회에 많은 자극이 될것이며 분단된 조국에 새로운 전기를 이룰것이다. 오는 7월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충현기도원에서 열리는 제 1기 북한선교 특공대 훈련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는것이다. 9월부터 시작될 특공대 훈련 3개월 코스 전초전으로 벌릴 단기코스 1기, 2기(7월, 8월)는 매우 귀한 기회가 될줄로 안다. 제 1기 북한선교 특공대 훈련의 계획을 살펴보면

1. 목적: 저게는 개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지원 협력하며 크게는 북녘땅에 잃은 형제들을 복음으로 다시 찾는 원동력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시대 한국교회에 주어진 전세기 복음화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질 헌신자를 기르는데 있다.

2. 기간: 단기 코스 제 1기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간-훈련과정으로는 1주일, 15일과정의 단기코스과 3개월, 6개월, 1년과정의 장기코스가 있다. 7월, 8월에 1주일 단기코스를 갖고 9월부터 3개월 코스와 아울러 단기코스는 계속 된다.)

3. 신청자격: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서 한국복음화 공산권 선교, 세계 복음화에 뜻이 있는자, 공산권이거나 강원도 산골이거나 주님이 원하시며 복종하여 헌신할 자. 그리고 휴전선이 건너질때 복음듣고 북녘땅에 들어가 잃은 영혼을 위해 희생제물이 될 자.

4. 인원: 〇〇명

5. 장소: 충현기도원 (앞으로는 지금 공사중인 강원

도 정선 특공대 훈련원에서 함)

6. 경비: 본인부담: 10,000원 (숙식비, 교재비, 기타 모든 제반 경비의 출을 본회 부담) - 선교 특공대 훈련에 뜻이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원을 요하는 사람에 대해 본 선교회에 청원하면 심사후 전액 장학금 지급, 또는 후에 현금으로 대치 할수 있음.



〈강원도 훈련원 부근에 있는 250여명 수용 가능한 동굴입구〉

7. 교과과정: 선교와 교회성장

공산권 선교 현황

공산권 선교 방법론

중공선교 현황과 방법론

바울의 선교관

한국 교회의 실정과 선교 (한국교회의 선교 가능성)

현대 선교신학의 동향과 비판

개인 전도학, 선교와 찬송학

세계 선교현황, 등 선교의 실질적 훈련

8. 감사: 김 창인목사의 북한선교회이사 목사등 사제 저명교수

9. 참가신청: 6월30일(토)까지

10. 보내실곳: 우편번호 - 1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36-3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북한선교 특공대 훈련 담당자알

③군인전도의 현장 / 군종사병훈련

군(軍)에서 벌어진 천국 잔치

김 중 석 강도사

(성가부지도·산전부지도)



할렐루야 찬송을 드립니다. 이 나라에 구원을 주시며, 우리 군대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민족은 때로 돈 조금 번 것 가지고 크게 떠벌이며 방탕한 길로 가기도 하고, 나라는 망해도 하나 몸 성히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망국(亡國)적이기주의가 횡행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시사, 우리의 허물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늘에 이 민족 중에 복음화의 불길 이 붙게 하시고 군대에도 복음화 달성의 소망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셨으니 이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뚜렷한 증좌(證座)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군(軍)과 민(民, 중현교회)이 협력하여 실시한 군종요원(軍宗要員) 훈련에 네명의 강사가 참여하였는데 애송이같은 본인도 한몫 끼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때 피교육자와 교육자가 아울러 받던 은혜와 감동을 보고하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 있기를 위하여 몇자 적으려고 합니다.

I. 어떻게 가게 됐나

군종요원훈련을 위하여 가게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전방 ○○사단은 전부터 우리 교회와 관계를 맺어왔었고, 군종요원훈련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군종요원훈련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강한 군대를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재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군종요원이 그 소임을 훌륭히 감당하려면 그 자신이 강한 힘을 소유해야 되겠고 이 강한 힘은 재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에 군종 지휘부는 재훈련을 실시케 되었고 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간 교회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회에서도 전도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자신이 투철한 신앙적 자세를 갖추고 아울러 전도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혜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겠지만 하물며 군대라는 특수사회에서 제급이라는 특수 상황에 처한 군종요원들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우면서도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부모와 친구, 고향을 떠나 엄격한 군율과 명령 속에서 외로움과 따뜻한 관심에 목말라 아쉬운 것 많고 답답한 것 많은 그들의 가슴 속에는, 군종요원들은 냉담한 눈초리, 비양거리는 말투, 공연한 시비를 아

랑곳 하지않고 용기있게 뛰어들어 복음을 심는다는 것, 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이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겠읍니까? 우리의 모든 군종요원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 것입니다. 더구나 훈련된 군종요원은 큰 부대에만 있지 작은 부대에는 일반병(一般兵)을 군종요원으로 이중(二重)임명 해놓았기 때문에 직책상, 시간상, 능력상, 군종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있으므로 이들을 이렇게 이따금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된 전도인을 만드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되었으므로 이 계획이 실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II. 가서 어떻게 했나

훈련장에 도착하니 군인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오열을 맞추어서 행진하여 군종요원들이 훈련장소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군대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십년 전 군대생활 생각과 더불어 저들이 얼마나 그 맘속에 투쟁하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군인이란 적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도 즉 자신의 하고싶은 말, 하고싶은 행동, 하고싶은 생각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그들 ○○명과 서울서 간 우리 민간인 몇이 마주 앉았습니다. 군종참모(목사님)의 진행 설명이 끝나고 개회예배 드리기 까지 잠시나는 틈을 이용하여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은 우리의 하나님께 인생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찬송 부르는 것을 보고 그가 영적으로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이북의 공산집단에서 훈련받은 그들은 그들의 노래를 부를 때에 무서울 정도로 힘차게 부른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야말로 저 공산주의자들을 넘어서고도 남도록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받으실 분이 저들이 찬양하는 대상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찬송을 부르려 합니다. 부르는데 보통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공산주의자가 멸도록, 아니 마귀 사탄이 새까맣게 죽어나가 멀어지도록 힘차게 부릅시다. 전력을 다해 부릅시다!” 이리하여 찬송이 시작되었는데 과연 과연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패기만만하고 호기왕성한 남자들만이 모여서, 그것도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모여서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비장한 각오로 모여 앉은 우리들의 찬송은 문자 그대로 천장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실로 마음껏, 눈치, 코치다 보지

않고 전심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 잡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기 처소를 떠나 발걸음을 옮겨올때 벌써 성령님은 더불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집회가 시작되고 설교시간이 되었습니다. 젊은 설교자, 목사도 아니고 아직 신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 전도사!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명은 김성완전도사인데 할렐루야! 하면서 강단에 올라설 때부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찼던지 청중이 압도되는 듯하였고 이어서 터져 나오는 합성파도 같고 절규와도 같은 복음의 멧세지는 아무리 돌덩이 같은 사람의 마음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이상하게도 감사대본이 모두젊은이였는데 또한 한가지로 열렬한 증거자가 되어 전력을 다해 부르짖었던 것도 이상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설교자의 확신에 찬 음성과 확신에 따라 몸소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행한 절도(傳道)의 역정(歷程) 소개는 설득력 있게 어필(Apel: 접근) 되었습니다. 설교 후 통성기도는 끊임 줄을 물라 사회자가 수차 금지를 요청해야 할 만큼 집회는 실로 천국잔치가 되었습니다.

잔치란 무질할 경우 시간을 잡도록 되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집회도 끝나고 보니 잠잠 시간이 뛰어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서너시간을 자고 일어나 새벽기도회, 말이 새벽기도회지 일반교회의 새벽기도회와는 전혀 달라서 시간부터가 최소 두시간, 그 내용도 저녁집회와 연관된 것으로서 말하자면 한 집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진행은 한 목표를 집중 공격한다는 특이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어젯밤에 결단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한 목표 전도인의 일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를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주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16) 이었다. >



「군종활동사례보고회」라는 시간도 가졌는데 배우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어떤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난제를 해결해 나갔던가를 여러 부대별로 발표했는데, 피차 실제적인 힌트를 얻게되어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종요원들이 어떻게나 말을 잘하는지 아주 대견한 밤 그지 없었습니다. 힘든 분위기를 해치고 단련된 몸들이라 여러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침착하게 할 말을 유유무루를 섞어가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낮 전도법 시간에는 이 손 전도사(본교회 당회장 실 근무)님이 담당했는데 19세 약판으로 농촌교회를 개척하였던 사람답게 실제적인 것을 간결한 심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84 kg나가는 몸무게에 익살이 더덕더덕한 분이어서 지루한 줄 모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성경공부는 이성봉 목사님(본교회 청년부지도, 복수 전도담당)이 담당하였는데 작고하신 이성봉 목사님과 성명이 똑같은 뿐 아니라 화술도 닮아서 어찌나 웃음 속으로 몰아넣는지 감 못잡 피로를 다 잊을 정도였고, 그러면서도 웃점 중심의 명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지내다 보니 3박 4일이 꿈쩍 가버려 올해 한번 더하자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튀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자기는 군종요원이라 이름만 있었지 한번도 활동한 적이 없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으나 이번에 와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깨닫고 간다면서 이제는 가서 어떻게든 활동을 해보야겠다면서 새로워진 각오를 표명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중대급 요원은 년 2차 이렇게 훈련하고 대대급요원은 매월 하루씩 연속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형제 군종요원들이 외로운 곳에서 눈총을 받아가며 초소마다 한손에 성경, 한손에는 사탕이나 따뜻한 차 한잔씩 들고, 고군분투하며 이리저리. 뭘 것을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열망이 어떠한가를!" 그리고 다만 기억하소서, 우리의 나라와 이 백성을!" 아멘

한국교회와 6. 25



김 차 생 장로

(담화원·성경학원원장)

6·25의 비극은 8·15의 민족 해방의 그 시기에 이미 암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제의 사슬에서 풀리면서 우리 민족은 전혀 예상할 수도 없던 민족 분열의 비극에 직면했던 것이다. 강토가 분단되고 삶의 양식을 달리하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제에서의 해방, 우리의 발을 묶은 착고가 풀리고 손의 자유를 억압하던 쇠사슬이 풀린 그날의 감격에 흥분한 나머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동안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토와 민족이 분단되었고 이 분단의 비극적 상황을 민족 스스로가 극복하려고 노력해 보지도 못하고 오천년 역사에 가장 극심한 민족상잔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이다.

민족 비극의 와중에서도 분열한 교회

그러나 교회마저도 이 무서운 민족상잔의 비극을 예견하지 못하고 이 민족 비극의 와중에서 오히려 분열을 하고 서로 정죄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하늘에 달을듯 달을듯 싶느냐?」 많은 선지자의 선한 피를 흘리게 하던 성도(聖都)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지우시던 주님의 심정이 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음 무서운 전쟁의 비극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했을 교회는, 1950년 4월21일 대구 제일교회당에서 모인 장로회 제36회 총회시 개회 벽두부터 회원자격문제로 논전, 서로 정죄하고 피투성이의 혈투를 했던 것이다. 교회에서 일어난 불상사가 있는 지두달도 못되어 6.25동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한번도 교회가 합심하여 이 무서운 민족 분열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기도를 해 보지도 못했고 목매어 물어 보지도 못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교회

는 둘로 셋으로 분열하고 마는 행위를, 물려오는 적의 탱크 앞에서 행했던 것이다.

드디어 민족상잔의 전쟁은 일어났다. 1950년 6월 25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 기습하던 수법으로 모든 기밀을 일체 비밀에 붙이고, 우리 국군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자리를 비운 주일 새벽 38선 전역에서 북한 공산집단의 야만적인 침략이 야기된 것이다. 북한 공산집단의 불법 남침으로 야기된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3년 1개월 동안 계속됐다. 이 전쟁 중에 남한지역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된 자는 37만 3천 6백명이나 되고, 납치된 애국인사들의 수가 12만 3천명이나 달했다. 그털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김일성집단의 치밀하고 우세한 군사력에 당할 수 없었던 힘의 열세도 문제였던 것이다.

당시 남한의 군사력은 미비한 것이었다. 보병 8개사단 중 38선 경비에 완전하지 못한 4개사단으로 경비를 담당했고 그 나머지 병력과 경찰력으로 국내치안과 공비 토벌에 임하는 형편이었다.

육해공군 합해서 10만을 넘지 못했고 그 병력마저도 장비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20대 미만의 연륜용 경비행기와 정찰기, 수대의 정찰용 장갑차 그리고 남은 105밀리 고사포가 고작이었다.

여기에 비해서 공산군의 병력은 어마어마했다. 그리고 괴뢰군 중공군(광로군)과 소련군에서 훈련받은 정예군의 지휘관이 있었고 보병 8개사단(병력 19만 8천)과 전차 2개사단(탱크 2백42대) 전투포격기 2백11대였다.

다행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괴의 침략행위에 제동을 걸었고 미국을 포함한 자유유방국가에서 지원군을 파견하여 위기에 처한 한국을 전적낼 수 있었

□□□...한번도 교회가 합심하여 이 무서운 분열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기도를 해 보지도 못했고 목메어 울어 보지도 못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교회를 둘로 셋으로 분열하고 마는 행위를, 오는 적의 탱크 앞에서 행했던 것이다

다.

그러나 또 다시 중공군이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하여 전세는 다시 불리했다. 한국교회는 1. 4후퇴 때 부산에 물려왔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6.25 동란으로 장로교회가 1백52교회, 감리교가 84교회, 성결교가 27교회가 파손되었다. 물론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교회당의 손실도 많았다.

순교 납치된 인사도 장로교에서 1백77명, 감리교가 44명, 성결교회가 11명이나 됐다. 그리고 전북 옥구군에 있는 원당교회에서는 75명의 교인들 중에 73명이 학살 순교 당했다.

절망의 순간에 쏟은 참회 눈물

이만한 회생을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서야 회개·통회·자복하는 눈물을 흘리며, 거국적인 구국기도회를 부산 초량교회에서 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그 구원의 손길을 찾아 무릎 꿇고 통곡했던 것이다.

절망의 최후의 순간에 드디어 참회의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신교 각 교파가 연합체를 만들고 기독교 전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라를 위해서 손이 닿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극도의 물질위주와 개인주의가 주님을 중시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에 미치는 영향과 민족과 국가에 미치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 꿈에도 소원은 통일 / 이 목숨 다 바쳐 통일 / 통일이여 오라……」

우리는 이 애절한 노래의 가사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내력을 알고 있다.

다시는 이 강토에 6.25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뿐 만아니라 이 무서운 전쟁의 요인이 되고 있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우리 스스로 전쟁의 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극복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명은 큰 것이다.

우리는 지난 몇년 사이 경제발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살기가 편해졌다는 이유로 실로 중요한 기독교인의 사명에 대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있다. 그것은 폐쇄한 생활 속에서 이 역사의

도상에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계시는 일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안으로 굽은 교회의 질병들

우리는 안정된 생활 속에서 안주하려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안으로 굽아 가고 있는 교회들의 질병부터 알아야 한다.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기독교인마저도 사치와 향락과 세속주의 적당주의 이단적 신비주의에 귀를 기울이고 지성인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도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보다 타협과 명예욕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6.25 전의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남북은 양단된 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토굴에서 굴방에서 가슴 죄이며 한켠루아 찬송을 목이 터져라 불러볼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등등의 아픔을 우리 신자가 먼저 알아야 한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하고 미리 다 아을 도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눈물을 저우시며 애통하시던 우리 주님의 심정을 본 받아 민족과 교회의 아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다행한 것은 우리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 하다 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동포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몸소 동분서주 하는 모습에서 이 민족의 살 길과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제생활의 안정이 진정한 삶의 안정이 될 수 없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절실한 문제를 잊고 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6.25를 맞는 현실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나와 내 민족이 다시는 그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 선지자를 필박하고 우리 주님의 손에 다시 못을 박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남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다.

전도하는 사람들

오 태 용

한 여성도는 모 여중에 부임하여 종교반을 조직, 능력있게 지도하고 있다. 공립학교에서 교장, 교감의 눈치를 살피며 오로지 생명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에서 오늘도 노트에 붙여진 학생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그들은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불신 가정에서 혼자 믿으면서도, 친구들은 한둘씩 시집을 갔음에도 어린 영혼들을 위해 결혼도 잠시 유보해 가면서 오직 대학시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젊은 지성들 틈바구니에서 훈련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또 어떤 젊은 부부교사는 일주일에 두번씩 퇴근후 강남 고속버스 터미날에 나가 전도지를 전배우고 있다. 먼데 학교에 근무하던 아내가 터미날에서 가까운 A급 학교로 전근 되었는데 무슨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고 터미날에서 부부가 전도 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들은 전도지만 주는게 아니라 상담도 해준다. 이 남자 역시 대학시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젊은 지성들과 함께 신앙을 키웠던 사람이다.

우리 동네 어떤 소아과 의사는 모 교회 장로라고 한다. 잘 한다는 소개를 받고 가보니 학력과 경력이 에스콰에도 알려진, A급 의사인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차례 들렸지만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물어야 겨우 몇마디 하시는 데 너무 사무적이어서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눈과 귀와 손발까지도 돈 버는 장로, 교인으로서의 친절미는 커녕 신자 냄새도 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알고 선한 청지기로 일하는 친구 의사와 비교가 되니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대비되는 직업인이 의사 아닌가? 병든 아아를 데리고 병원엔 오는 부모의 심정은 그 옛날 개 휘급을 받으면서도 귀신 들린 팔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수로보나게 여인의 심정과 다를 없을진대 환자비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친절을 베풀며 진료할 수는 없을까? 의사만큼 전도하기에 유리한 사람도 없을텐데.....

전도의 말을 갖자 자기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의지를 우리 모두 되살렸으면 한다.

찬송가 감상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새91)

김 중 석 감도사

(성가부지도)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믿음이란 단순한 것입니다. 사랑 만큼 그것은 단순한 것이면서 또한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단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게 되고 아울러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사랑은 더욱 뚜렷이 내 맘속에 파동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같은 하나님 사랑을 늘 찬송케 됩니다. 특히 전도하는 자들이 모여 이 찬송을 부를 때 더욱 기쁨과 감사에 휩싸이던 것을 기억합니다. 찬송은 혼자 불러도 좋은 것이지만 같은 맘으로 어울려 함께 찬송 부를 때 감동이 더욱 커지더군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이 시는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그렇게 명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싶습니다. 후렴에 가서 우리말 가사와 곡조는 한층 더 잘 어울리는데 “하나님 크신 사랑은.....”을 두팔 벌리고 맘껏 노래할 땐 정말 좋습니다.

이 찬송은 레만(F. M. Lehman)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가 이 시를 쓸 때 제3절은 어떤 정신병원 벽에 쓰여진 연필 낙서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병 가운데 정신질환이 몹시 많아지고 있는데 정신질환의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야말로 현대인을 치료하여 평안을 주는 최해 최상의 처방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의 노래를 오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불러 봅시다. 하나님으로 부터 말원된 사랑이 내 맘속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로 넘쳐 나도록.

* 도서정보 *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5월중 들어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주석

- 1) 칼빈주석; 출, 레, 민, 신, V.2 / 칼빈 지음 신교출판사, 1979
- 2) 랑게주석; 열왕기상 BAHK, K·W 지음 백합출판사, 1979, 612 p

2. 사전

- 1) 정통텔러 분해사전, 송종섭작 성광문화사, 1979, 729 p

3. 논문

- 1) 한국신학논총색인; 1916~1977, 박종호 편, 종신대학출판부, 1979, 704 p, 26cm

· 조직신학

- 1) 일반은총론, 바빙크, H 지음, 차영배역 종신대학출판부, 1979

II. 기증도서

- 1) 스컬전의 설교에 나타난 켈소어필, 아담스 J. E. 지음, 정양숙 옮김, 예수교문서선교회, 1978, (정양숙선생 기증)
- 2)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청중의 반응, 아담스 J. E. 지음, 정양숙 옮김, 예수교문서선교회, 1979, (정양숙 선생 기증)
- 3) 시효인간 / 김용규 지음, 나라사, 197 p (김창인목사 기증)
- 4) 경건생활의 기초 / 토저, A. W 지음, 생명의 말씀사, 1974, 157 p
 - 선교의 동기과 목적 / 영, 존 M. L. 지음 한국개척주의신행협회, 1972, 248 p
 - 신한싸움 / 뢰이번, 뢰버트 G 지음, 한국개척주의신행협회, 1968.
 - 사랑의 원자탄 / 안용규 지음, 성광문화사, 1977.
 - 스컬전목사 그의 생애 / 박종구 편 신앙애사, 1997, 7
 - 성령과 교육 / 주크, 로이드 B 지음, 영음사 1977, 이상 6 권의 나를 보내소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지금은 몰라도 (김월선선생기증)

* 책소개 *

정원식 저*

머리를 써서 살아라

211면 · 1,000원 발행처 / 보이스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중요성은 제언의 여지가 없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축복받은 유대 가정교육의 비결을 소개한 「머리를 써서 살아라」를 독자에게 권하고 싶다.

여기서 저자는 미국 유학시 접하게 된 유대인의 생활에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 그것은 그들의 굶핍을 모르는 신앙심과 굳게 다져진 민족 의식이었다. 이교도의 모진 박해와 2천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나라없는 생활에서도 그들의 신앙심과 민족 의식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과 더욱이 나라 없는 이산 생활속에서도 지금까지 노벨 수상자의 1/3을 차지할 만큼 우수 두뇌를 배출하였다는 점에서 이다.

그러기에 그 힘과 그 정신은 곧 어린시절 가정교육에 달렸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가정에서 교육하는 어머니들에게 날날이 증명하고 있다

내용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는 여호와께서 맡겨놓은 자녀이며, 이들에게 성경을 충실하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여호와에 대한 인간의 의무수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물질보다는 머리를, 기존의 지식보다는 지혜를 얻는 방법과 창조하는 능력을 주는 교육의 중요함을 「탈무드」에서 가르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는 구약속의 위인 즉 신앙이 두둑고 지혜가 풍부하며 민족정신이 투철한 성경속의 이야기로 어린이의 정신을 살찌우며 지적 정적 외지적인 이 세가지 면을 겸비한 완전한 인간상을 뚜렷이 확립시켜 준다.

그러므로 독립된 하나의 인격으로 성장하기 이전에, 뚜렷한 한국인으로 성장 하여 주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대학을 전학하거나 탁월한 재능 개발 이전에 먼저 여호와를 공경하고 그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신앙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아울러 민족정신을 심는 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심는 교육은 가정에서의 끈질긴 신앙적 교육에서부터 온다는 예를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여호와 공경하는 교육을 우선하여 축복받는 개인, 가정, 국가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이책을 권하고 싶은 것이다.

유 재 일 전도사 (산업전도교육부 부지도)

신약의 윤리관 (2)

김 하 진 목사

(본교회 부목사)

II. 예수님의 교훈 (윤리관)

예수님은 어떤체계를 세워 우리에게 윤리적 교훈을 주신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활동에서 그의 윤리관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윤리적 교훈에 나타난 도덕적 가치와 표준은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를 근거로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윤리적 교훈은 무엇일까?

1. 예수님께서서는 종교와 윤리를 분리해 가리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합된 것으로 가르치셨다.

다시 말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로 인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한다.

이러한 사상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뿐 아니라 그의 생활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공생애(ministry) 초기 나사렛 회당에서 읽은 이사야의 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 : 18-19, 사 61 : 1-2)

* 연재순서 *

- | | |
|------------------|----------------|
| 1. 기독교 윤리관 무엇인가 | I. 사랑의 실천 |
| 2. 구약에 나타난 윤리적사상 | II. 하나님나라 형성 |
| 3. 신약의 윤리관 | 8. 생활속의 윤리 |
| I. 신약의 도덕적이상 | I. 결혼과 가정·이혼문제 |
| II. 예수님의 교훈(윤리관) | II. 경제와 윤리 |
| 4. 윤리적 주관자 인간 | 9. 사회속의 윤리 |
| 5. 초대교회의 윤리적배경 | I. 기독교와 인종문제 |
| 6. 윤리적 척도인 양심 | II. 국제질서·전쟁·평화 |
| 7. 크리스찬의 윤리적 이상 | III. 기독교 윤리와문화 |

이상과 같이 그의 공생애의 임직사와 같은 말씀가운데서도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사상을 발견하게 된다. (마 5 : 44-45, 마 5 : 9, 48, 눅 6 : 36참조)

2. 예수님은 윤리적이며, 정신적인 내면성을 강조하는데 치중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이 외부적 행동에 무관심했다거나 사람과 사람사이에 취해야 할 행위에 등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예수님은 말만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엄히 책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올바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이다.

(마 23 : 3, 4, 23-26)

이와같이 예수님의 책망의 초점은 항상 더 중요한 것을 도외시하고 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는데 있었다.

3.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중심 생활에 대한 요구에 명백한 전형(Pattern)을 보이셨다.

여기서 “명백한 전형”이란 어떤 청사진이나 쉽게 적용에 쓸수 있는 규범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생활의 필요성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뿐 아니라 성경 도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공관복음에 있는 팔복에서 요약된 사상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근본 사상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사랑이다. 여기서 유래한 윤리가 마음의 정결, 진실, 겸손, 용서, 원수에 대한 사랑, 긍휼, 심판에서의 자비, 말과 행동에서의 정직, 성적 순결, 물질적 보배보다 정신적 보배를 택하는 태도에서 보여지는 세속적 목표의 포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동정등으로 나타난다.

선한 행동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대하고 자기 희생적인 봉사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끊임없는 순진한 신뢰의 생활인 것이다.

이와같이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중심한 생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생활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생활에 들어 가게 하는 그런 삶의 본질이 무엇임을 선포하는데 있었다.

□□□… 선한행동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대하고 자기 희생적인 봉사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끊임없고 순진한 신뢰의 생활인 것이다. 이와같이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중심한 생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생활,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생활에 들어 가게 하는 그런 삶의 본질이 무엇임을 선포하는데 있었다 …□□□

4.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그 속죄 생활에 대해 현실적인 진리를 보여 주셨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죄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꾸밈과 기만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로부터 해방 받게 하기 위하여 그 자신 전부를 바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 : 17)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죄를 극복하는데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신다는 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요약되고 있다. 이렇게 인간 사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이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 6 : 33)와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마 4 : 17)이며,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태도 (6 : 14-15)와 믿음 (눅 7 : 50)등이라 하겠다.

5. 예수님은 인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셨다.

한 개인이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로 나타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전 사역은 각 개인의 속량 행위에 집중되었다. 그것이 육체적 질병에서거나, 정신적 불안에서거나, 파도 또는 죄악에서거나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데서부터 인간을 구원하려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했으며 따라서 그의 전 존재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바쳤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각 개인의 인격을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마 12 : 12, 마 10 : 31)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한 인간이 하나님앞에 얼마나 고귀한가를 강조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 명동의 진리를 예수님의 태도와 행동에서 찾아 보게 된다. 사실상 예수님은 부녀자이든, 어린 아이든, 또 노예를 대할 때에나 주인을 대할 때에나 그의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간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거나, 버림받은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언제나 동등하게 대하셨던 것이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예수 그리스도안에서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이다.” (갈 3 : 28)

6. 예수님의 중심적 교훈은 「하나님 나라」였다.

1)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속량받은 사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의로운 통치를 의미한다. 속량 사회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를 말한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공동 사회”인 것이다. 이런 공동 사회의 생활에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많은 교훈을 주셨다. 그것은 죄가 범죄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해독을 끼친다는 사실을 관심있게 표명하신 것이다. (눅 10 : 30-37, 18 : 2-6, 9 : 2-10, 16 : 9-31, 마 25 : 42-43 참조)

2)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가 지상의 선이며 최고의 가치라고 단정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전 존재와 가치를 걸고 이를 찾아야 할 것을 복음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마 6 : 33, 13 : 44의 비유, 13 : 45-46의 비유 13 : 47이하의 비유등 참조)

그런데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책임을 수행하는 일 없이 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 질 수 있다는 것도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훈에 충실하려면 무책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눅 12 : 참조)

3)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하여 명백히 제시하셨다.

즉 자기의 덕행과 자기의 준법적 공적에 신뢰를 두는 자의적 도덕주의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자라고 가르친 일은 한번도 없었다. 이러한 사상은 바울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그 나라는 주어지는 것이다. (마 10 : 15, 7 : 21, 5 : 8, 21 : 3, 막 12 : 34 참조)

선교월보

인도네시아 - 서 만 수 선교사

1. 구호품인수: 홍콩한인교회(홍종만목사)가 정글선교를 위하여 발송한 구호품(300kg)을 인수하다. 이는 티모르섬에 공급될 예정임.
2. 한인교회 성례식: 금년도 준기 성례식을 4월 8일과 13일에 거행함. (세례 4명, 유아세례 4명)
3. 동부 자바 및 발리 순회: 5월 14일부터 시작함. 이곳은 우기의 계속으로 도처에 물난리와 탄산가스 및 화산폭발이 심한 곳임.
4. 인도네시아 후보자 서류 접수 및 준비

* 기도제목

1. 동부 자바 및 발리 순회 전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자.
2. 인도네시아 선교후보자를 위하여 기도하자.

홍 콩 - 홍 종 만 선교사

1. 4월 1일 한인교회 야외예배 실시.
2. 고난주간 특별집회 실시 (4월 13일~14일)
3. 육군사관학교 전도비 5개월분 송금.
4. 4월 15일 부활주일 새벽집회 및 예배

☐ 선교사에게서 온 편지 ☐

이 땅위의 만가지 일 중에 가장 보람있고 귀한 것

한델루야!

주안에서 보내주신 서신은 반가이 받았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의 일에 힘 쓰시며 죄악이 관용한 이 땅위에 대학부의 배움의 학도로서 주의 일에 힘쓰며 더욱이나 선교주일학교에서 선교의 깊은 관심과 주의 사명을 느껴 배우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곳 저희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로 믿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부 주일학교와 온 교회, 특히 대학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 받을 청년들이 우리 겨레의 소망이 아닐까. 우리 중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이곳 북해도에도 봄이 찾아 왔습니다. 전도의 불도 타 올라 온 교회가 새벽기도를 시작해서 일본에서는 보기도 못한 현상이라고 타교회에서 부러워들 합니다. 선교사님 내외분(미국 메노나이트교단 소속의 브라사선교사를 말함 - 편집자 주)과 합하여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전도한지도 3년이 지나 이제는 많은 환자라도 인간적으로 친근감이 있어 전도하기가 좀 수월해졌습니다. 물론 여러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회가 기도해 주시는 덕분이지요. 요사이 환자로서 「도노소」 할

아버지와 「벨기」라는 여자가 처음으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습니다. 저도 요사이 노방전도와 축호 전도를 시작하였는데 어제는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전도하였더니 잘 받아 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래의 우상숭배의 습관의 벽이 너무나도 두터워서 참 힘이 듭니다.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다가도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필박으로 자라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에 그중에서도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감사할 뿐입니다. 이 땅위의 만가지 일중에 가장 보람있고 귀한 것은 주의 일밖에 없는 것을 새삼 체험합니다. 선교주일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받으셔서 주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서신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일본에서 유 병 세

〈이 편지는 주일학교 선교부의 학생들이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 답해 온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답장이 답장을 써 주었습니다. - 편집자〉

선교월보

5. 홍콩한인교회 수양회를 4월16~17일가짐.
6. 세례, 학습문답자를 위한 준비공부및 기도회 실시
7. 광둥어(중국어) 강습을 받기 시작.
8. 중국본토 선교기관및 인도네시아에 선교비 H \$ 3,200 송금함
9. 홍목사님 자제 훈이가 장학생시험에 합격하여 중등과정의 수업료 면제받음.
10. 대 중국대륙선교를 위한 영어성경 방송 전도에 대한 특별 기도사항 요망.

애 굽-이 연 호 선교사

지난 4월14일 일시 귀국하신 이래 본교회와 여러 교회에 가셔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애굽선교를 위해 큰 부흥을 조성하시고 계시다. 또한 이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치료자 자녀들을 데리고 5월9일 일시 귀국하셨다.

사모님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온교회가 기도해야겠다. 이선교사님은 5월15일~23일까지 홍콩에서 총회주관으로 열리는 제2회 한인선교사세미나에 당회장목사님과 함께 참석하고 지난 5월23일 귀국하셨다.

서 독-육 호 기 선교사

1. 4월15일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림.
비스바덴 한인교회와 뷔츠부룩 한인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2. 4월15일 춘기 성례식을 거행하다.
(학습 9명 세례14명, 유아세례 3명)

*기도 제목

1. 비스바덴 한인교회 금년 성인출석목표 70명과 뷔츠부룩 한인교회 금년 성인 출석목표 50명 달성을 위하여
2. 어린이 주일(5월6일)과 부모님주일(5월13일) 창립 2주년 기념예배(5월8일)와 경로회 행사를 위하여

호 주-김 태 현 선교사

1. 4월8일 춘기 성례식거행(학습 5명, 세례 1명 입교 2명 개종 1명)

2.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하여 김목사님 대표기도하시고 한인교회가 성가를 담당하였다.
3. 가정심방실시(22회)
4. 새로 출석한 가정이 6가정 증가됨.
5. 4월집회평균통계, 장년 56명, 유년 32명.

*기도 제목

1. 교회부흥을 위하여
2. 태평양전선교의 중심지가 되도록

일 본-유 병 세 평신도선교사

1. 병원환자중 전도의 결심으로 교회출석함(당원씨)
2. 이윤호전사님 성도들에게 떡국과 생과자를 대접함.
3. 젊은이 2명에게 전도하여 좋은 반응얻음
4. 새벽기도회때마다 시편강해실시.
5. 부인성경공부에 이권사님 인도.
6. 이권사님 축호전도와 학생전도실시.
7. 이권사님 주일학교에서 설교함.

*기도 제목

1. 결신자 혹은 믿음 약한 자들이 계속 교회 출석토록 기도하자.
2. 유선교사님내외분계 건강과 전도의 능력이 같이 하시도록
3. 교회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서 독-박 용 삼 평신도선교사

1. 박선교사님의 전공과목 연구는 잘 진행되고 있다. (새학기 시작됨)
2. 선교학자인 피터 바이엘하우스박사실에서 부전공으로 선교학을 연구하시며, 본교 선교훈련생들을 위한 참고서적및 자료들을 요구함.

* 기도 제목

1. 불리한 환경속에서 연구중이신 박선교사님의 건강과 모든 연구과정을 위해
2. 온 가족의 평안을 위해

모 범 답 안

번호	정 답	번호	정 답
1	모압	36	24 : 17
2	○	37	○
3	다	38	×
4	가	39	아비가일, 아려노암
5	은혜	40	여호와와 기쁨 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6	다	41	라
7	다	42	다
8	엘가나, 한나	43	가
9	엘리	44	나
10	엘리가 한나에게	45	호위 병
11	2 : 6	46	나
12	○	47	30 : 6
13	라	48	×
14	선지자	49	가
15	나	50	여인의 사랑
16	미스바	51	헤브론에서 유다족속의왕
17	도움의 물	52	○
18	가	53	30
19	나	54	5:24
20	10 : 8	55	나
21	기도	56	나
22	행 13 : 22	57	라
23	나	58	가
24	삼상 15 : 22	59	다
25	나	60	마
26	중심	61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27	엘라 골짜기	62	라
28	여섯 규빗 한 뼘	63	○
29	라	64	소비, 마길, 바실래
30	여호와	65	삼하 18 : 33
31	자기 생명같이 사랑	66	×
32	×	67	요새
33	요나단, 다윗	68	×
34	나	69	.
35	여호와	70	라

5 월중 새 교우 명단

새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1 지구

심양③구역 송보섭 도봉구 미아 6동 637번지117호 19통 1반
 심양③구역 김예순 도봉구 미아 6동 637번지117호 19통 1반
 심양③구역 송호준 도봉구 미아 6동 637번지117호 19통 1반
 심양②구역 김복임 도봉구 미아 8동 860번지84호 3통 6반

제 2 지구

광희②구역 김혜숙 중구 을지로 5가 80번지 2호(적)
 휘경 구역 민경희 동대문구 이문 2동 343번지 3호1/2
 행당 구역 조복선 성동구 행당동 104-6번지
 마장 구역 강신호 성동구 홍익동 410번지
 신당①구역 이만갑 중구 신당동 304번지 214호
 신당①구역 강부자 중구 신당동 304번지 214호
 왕십리구역 최영옥 성동구 하왕 2동 1000번지
 중곡②구역 이미경 성동구 중곡동 122번지 18호

제 3 지구

잠실④구역 이영자 강남구 잠실 4동 시영APT 2동 54호
 잠실④구역 김연수 강남구 문정동 114번지
 잠실③구역 원문자 강남구 잠실355동 103호
 성남 구역 김연숙 성남시 상대원동 401-29
 성수 구역 김옥자 성동구 성수동 2가 572번지 3호

제 4 지구

필동②구역 박순례 중구 필동 3가 18번지
 필동③구역 이호선 중구 필동 3가 42-5호
 청파 구역 이태훈 용산구 원효로 1가 41번지
 시흥 구역 김지은 안양시 안양 3동 1009-8
 필동②구역 심인순 중구 필동 2가 123번지 5호
 필동②구역 최이분 중구 필동 3가 17번지 2호
 필동②구역 최숙희 중구 필동 2가 123번지 5호
 필동①구역 유금례 중구 필동 3가 1번지 1호
 여의도구역 윤진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하APT B동 305호
 용문 구역 하호면 용산구 도원동 12번지

제 5 구역

응암②구역 장은숙 서대문구 응암동 39번지 146호
 구로구역 조계옥 영등포구 구로 5동 571번지 46호
 홍제구역 이경원 서대문구 홍은동 8번지 99호
 을지②구역 서승희 중구 주교동 251번지 1호
 갈현구역 지홍재 서대문구 갈현동 484번지 157호
 중무②구역 이길송 중구 오장동 90번지 5호
 초동구역 조순자 중구 인현동 1가 87번지 1호
 중부구역 박순배 중구 오장동 127번지
 불광구역 권효명 서대문구 불광동 280번지 531호 18동 5반

* 축하합니다. (5월중 결혼)

- 김재중군(신채환권사 아들)과 이신애양(이응선장로, 박봉순권사 딸)/1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김정필군(중등부 교사)/2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김창호군(김정선집사, 조계진권사 장남) 3일, 오후 1시, 본 교회당에서
- 정준택군(정국환씨 아들)/4일, 오후 3시, 타워호텔에서
- 박행렬군(박원래씨, 조봉환 씨 아들)/5일, 오전11시 본 교회당에서
- 권영필군(상도②구역)과김은희양(염리구역)/5일, 오후 2시30분, 종로예식장에서
- 윤완철군(윤중성장로, 신군자권사 2남)과 최성희양(장충①구역, 이남형씨 딸) 영 7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 백선홍군(담십리구역)과 김인선양(주교교사)/7일, 오후 2시, 본 교회당에서
- 서경선양(윤옥희씨 3녀)/10일, 12시, 타워호텔에서
- 안신덕양(안용걸 집사, 안윤진 권사 3녀)/12일, 오후 1시, 본 교회당에서
- 이애나양(이원철장로, 이보영 집사 장녀)/14일, 오후 2시, 본 교회당에서
- 박승규군(양재숙권사 아들)/24일, 12시 원일교회당에서
- 김경희양(김용식씨, 우순성씨 딸)/24일, 오후 1시, 기독교 태화관에서
- 고제원군(지순분 권사 아들)과 이경옥양(이명달전도사 외손, 성귀명집사 딸)/24일, 오후 3시, 본 교회당에서
- 김인혁군(청년부회원)과 한성숙양(계이성가대)/26일 12시, 본 교회당에서
- 오남숙양(이순희 권할 딸)/26일, 오후 2시, 영락교회당에서
- 임영성군(이효구씨 아들)/26일, 오후 2시30분, 행복예식장에서
- 노명남군(노동빈씨, 김화련 권사 아들)/28일, 오후 1시, 본 교회당에서

구역장 수첩⑤

예배모범(3)

김재창 목사

(구역권찰회회장)

제 5 장 공식기도

1. 교회 공식예배를 시작할 때는 간단한 기도로 합이 옮으니 겸비한 태도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숭배하며 우리가 육정을 인하여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것과 죄인이 되어 공로 없는 것을 고하고 그의 은혜롭게 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에 대하여 성령의 은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구하라.
2. 시나 찬송은 부른 후 설교하기 전에 신자의 일체 소원을 포함한 기도를 할지니

- 1) 영광을 돌림 /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시는 것과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완전하심을 존중할 것.
- 2) 감사 /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혜를 사례할지니 보통은혜와 특별은혜와 신령적 은혜와 육체적 은혜와 단체적 은혜와 개인적 은혜로 감사하되 모든 은혜 위에 초월한 은혜 곧 말할 수 없는 선물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과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크게 감사할 것.
- 3) 자 복 / 원죄와 자기 범죄한 것을 자복하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은 그 성질이 하나님에게의 분리되는 것이니 심히 악한 것으로 깨닫게 하며 또한 죄 뿌리에서 나는 각 죄를 말할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이웃을 해하는 죄와 자기를 해하는 죄와 사언행으로 범하는 죄와 은밀한 죄와 참람한 죄와 우연히 범하는 죄와 습관으로 범하는 죄며 또 죄와 죄를 더하는 것도 말할지니 가령 짐짓 범하는 죄와 분별할 도리가 있는데 범하는 죄와 특별한 자비를 받고 범하는 죄와 특권을 받은 후 범한 죄와 맹서한 후 범한 죄들이다.

(다음호에 계속)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 59:10~17

다윗의 신앙고백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날에 피난처시니이다』

다윗은 인간에게는 비록 쫓겨 다녀도 하나님의 품속에 영접을 받았으니 나의 원수가 필경 망하는 것을 구경할찌라도 그들을 급히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알려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할 때 바로왕을 당장에 멸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천천히 내려 바로왕을 항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후세에 오는 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신 것처럼 악한 자를 당장에 멸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의 최후를 알고 있는 다윗은 구원을 얻은 입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어둠에서 광명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산성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이 찬송한 것처럼 산성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감사 찬송하는 생활이 됩시다.

시 60:1~3

하나님의 징계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참하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다윗왕은 가는 데마다 승리를 거두었으나 뜻하지 않은 애들민에게는 실패를 하였는데 그 실패가 일시적인 것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징계임을 깨닫고 자기의 잘되는 것이 자기의 잘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자기의 실패는 자기의 부족과 실수와 교만과 죄악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보아 주심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므로, 우리에게 분노하심으로, 우리는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 밖에 없고 땅을 진동시키시니 민심이 소란하여 흔들릴 수 밖에 없고, 분열되고 있음을 깨달아 기우셔서 정치를 통일시키고 민심을 안정시켜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자는 일할 수가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니 징계 받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징계에서 면하는 생활을 합시다.

시 60:4~8

하나님의 약속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정당한 성도들에게 기(旗)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는 군대의 정신과 행동을 지시하는 표호(標號)인데 기를 세운다는 말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를 달게 하셨다는 것은 성공하게 하시었다인데 그것은 승리를 위하여 기를 달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거짓 없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를 전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당신의 오른손은 권능으로 원수의 급습에서 구원하여 주어야 되겠다고 하며 그 약속의 말씀은 기쁨으로 이루어주시기를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성취를 나열하였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기쁨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삽시다.

시 60:9~12

도와주심을 호소함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상이로다』

누가 나를 이끌어 전고한 에돔의 서울 페트라(petra)에 입성하게 하여 줄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원수의 손에 내어 버려 두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원수의 성을 점령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를 내어 버려두시면 우리의 군대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치 못하오니 전능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어 원수에게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사람이 도와 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필경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싸워서 원수의 장수들을 잡아 그 목을 우리의 발로 밟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오니 권능을 위해 호소하여 권능을 믿고 원수를 대적하는 삶을 삽시다.

이 원고는 김창인목사의 시편강해를 월간중현 편집실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초등부 성가대

어린이 성가대 합창제 출연

우리 교회의 초등부 어린이 성가대는 지난 5월 19일(토) 한국 기독교 교육진흥원(원장: 원우연 목사)이 주최한 제 1회 어린이 성가대 합창제에 출연했다.

류관순기념관에서 발표한 이 합창제는 극동·아세아·기독교방

송이 후원했는데 우리 교회의 어린이 성가대 외에도 8교회의 어린이 성가대가 참여하였다.

어린이 성가대 합창제로는 처음으로 열린 이 합창제는 「어린이 성가의 보급과 어린이 성가대 육성 및 성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

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 하는 기쁨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어린이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간접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합창제의 목적이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 성가대는 이날 양인환선생의 지휘와 김성실선생의 반주로 연주했다.

유치부

주간성경학교 확대

유치부 어린이들의 주일교육 연장과 보충을 위해 지난 3월 21일 개교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열렸던 주간성경학교가 그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현재 교사수의 제한 및 교실등의 사정에 따라 수요일 밖에 열수 없는 주간성경학교를 목요일에도 열기로 하였다.

따라서 유치부는 수요일과 목요일 주 2일씩 주간성경학교를 열게 되었는데 현재 수요일에는 53명, 목요일에는 19명이 각각 출석하고 있으며 영아부도 매주 목요일 학부모를 위한 목요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양로원 방문 전도

주일학교 장년부는 6월 총동원 전도의 달을 맞아 방문전도의 일환으로 지난 6월 7일(목) 의정부시의 자혜원(양로원)을 방문하

였다.

장년부 지도 김종택목사의 인솔하에 장년부 학생 30여명이 과일과 떡 등 다과와 여름옷등을 선물로 마련하여서 연고자가 없는 70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로하며 말씀을 전했다.

우리의 삶중에서

성경이란 자여

조용히 앉아 음과 속삭이라.

한가지 일에 몰두하는 자여

모세와 베드로의 기사를 읽으라.

유약한 자여

엘리아를 보아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자여
다윗에게 돌으라.

정치가들이여
다니엘서를 읽으라

실망과 흑암 가운데 있는 자여
이사야서를 읽으라

마음이 냉랭한 자여
사랑의 사도를 가까이 하라.

신앙이 얇은 자여
바울을 주목하라.

안일한 자여
아고보서를 읽지 말라.

잠재의 소망이 없는 자여
요한계시록에 의하여 약속의 땅을 읽라.

1979년 계절학교(여름) 개막

— 주교 각부별 세부계획 수립 한창 —

무더운 여름이 가까워 오면 모든 사람들은 한여름의 더위를 피해 어떻게 휴식을 취할 것인가를 계획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그와 달리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오면 어떻게 담뿔려 수고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우리교회 주일학교도 이와 같은 교회의 방향에 예외는 아니어서 각부가 최소 2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일정을 잡아 배우고 성장하며 봉사하는 일에 보다 알차고 큰 효과를 기대하며 각부별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계획 수립과 준비작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올해 여름 계절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부는 15개 부(部) 가운데 모두 13개 부로서 어린이 새신자부·영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부·청년부·노년부·산업전도교육부·선교부 등이다.

지난 5월 20일 교육 위원회에서 주일학교 전체의 장소, 일정, 예산, 교과내용 등을 조정 하여 종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부에 보고토록 한 「1979년 계절학교(여름) 개요보고서」의 내용을 중시하여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 보면 장소는 초등부를 제외한 주교 I부가 본교회에서 실시하며 초등부를 포함한 주교 II부·III부의 대부분이 충천기도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또 13개부의 전체예산액은 대략 1천만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정이 가장 빠른 부가 7월 중순에 시작하여 가장 늦은 부가 8월말경에 끝나도록 되어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각부의 계획안을 접수하여 장소, 일정, 예산 등의 종합적인 여름 계절학교 계획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각부

실무자들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선교부

중국어 강좌 신설

주일학교 선교부는 지난 6월 4일(월)에 중국어 강좌를 신설하였다. 앞으로 중국대륙선교를 앞두고 중국어가 필수 요건이 됨으로 이에 신실하게 됐는데 강사는 지난 3월에 홍콩에서 57년간 생활한 후 귀국한 이 응씨가 맡게 되었다.



교사·학생 출석동향

· 교사

4월의 교사 재적수는 3월의 465명보다 5명이 감소한 460명으로 나타났고, 출석률도 3월보다 1%가 낮은 96%로 나타났다. 이는 또한 1월 교사재적수 445명 보다는 4월 교사재적수가 15명이 더 많다.

각부별로 보면 어린이새신자부(재적 29명) 장년새신자부(재적 19명), 청년부(재적 7명) 선교부(재적 7명) 등의 교사출석률이 각각 100%였다.

학생

4월중 주교학생 전체에 대한 출석률은 재적 4254명중 2979명이 출석하여 70%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3월의 68%보다 2% 상승된 것이고 재적수는 3월의 4243명보다 88명이 감소된 것이다.

이를 주교 각부별로 분석해 보면 유치부가 3월 출석률 97%가 4월에는 83%로 크게 떨어졌는데 재적수 268명이었던 3월에 비해 4월에는 301명으로 재적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석수에서는 3월이 259명 4

월이 250명으로 크게 늘어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이 유치부 뿐만 아니라 유년부, 장년새신자부, 고등부, 선교부등 5개 부가 3월에 비해 출석률이 저하된 반면 영아부, 초등부, 대학부, 청년부, 노년부, 산업전도교육부등은 출석률이 소폭이기는 하나 상승되었다.

이를 1월 통계치와 비교해 보면 1월 재적수 4067명 보다는 4월 재적이 4254명으로 187명이 증가되었고 출석률도 또한 1월의 69% 보다는 1%가 높은 것이다

고등부

학년별 수련회 마쳐

주일학교 고등부는 지난 6월 5-6일 기도원에서 1학년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학년별 수련회를 모두 마쳤다.

금년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학년별 수련회는 지난 2월28일 - 3월1일의 3학년 수련회, 4월 4-5일의 2학년 수련회, 이번의 1학년 수련회를 끝으로 모두 마쳤는데 이와같은 학년별 수련회를 통하여 각 학년의 특성을 살피 볼 수 있어 앞으로 고등부의 지도 방향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각 학년별 교제와 교사와 학생간에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교사의 기도

5 월의 주교 인사이동

• 교사입명

어린이새신자부

이종석(남)임시교사

김태희(남)임시교사

유년부

김석향(여)임시교사

추정희(여)임시교사

김미선(여)성가대지휘

초등부

김혜숙(여)정교사

유옥자(여)정교사

위현(여)임시교사

채선아(여)임시교사

박수경(여)임시교사

중등부

홍훈식(남)임시교사

김정필(남)임시교사

고등부

박태규(남)임시교사

안춘진(여)정교사

이경선(여)성가대 반주

• 교사퇴임

유년부

장익도(남)임시교사

김순련(여)정교사

임옥순(여)정교사

고등부

지영순(여)정교사

이애나(여)성가대 반주

김영숙(여)정교사



착하다 착한눈을 가진 어린이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때 끔찍이도 사랑하시던 어린이를 위해 기도 할 수있게 해주심을 감사 드려요.

먼저 어린이를 위하여, 저 자신을 위해 기도 드려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것같이 저도 어린이를 사랑하게 해주셔요.

조건없는 사랑을 저에게 주셨듯이 저도 어린이에게 일반통행의 사랑을 줄수있으면 좋겠어요
기도시간에 눈 뜨는 어린이, 헌금 때어먹는 어린이, 버릇없는 어린이, 말을 안하려는 고집스런 어린이, 1년내내 요절 한번 못되는 명칭한 어린이, 아무리 타일러도 계속 옆의 친구와 짝 짝거리려는 어린이.. 심방을 가야만 나와주는(?) 어린이, 이들 모든 어린이를 진심으로 용납하고 그들편에서 이해하고,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어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제게주신 사랑은 다 까먹고 지금은 조금밖에 없어요. 거의 바닥이 나도록 낭비했어요.

용서해 주셔요. 다신 안 그럴게요.

저를 통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배우게 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맡은 어린이를 위해 기도드려요

- 사랑을 남에게 나눠주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폭넓은 어린이로요.
- 마귀에게 유괴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 늘 맑은 눈동자를 지니게 해 주세요. 죄에 물들지않는, 행여 죄를 보더라도 스스로 돌아키는 착하다 착한 눈을.
- 그들의 인격이 절대로 무시당하지않게 해 주세요.
- 영적, 육적으로 슬픔일랑 맛보지도 않게 해 주세요.
- 저의 신경질을 배우지 않게 해 주셔요.
- 저의 위선을 배우지 않게 해 주셔요.
- 저의 변명을 배우지 않게,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는 어린이로 키워 주셔요.
- 저의 게으름을 배우지 않게 해주셔요.
- 이들중에서 천국일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해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 아멘 -

김정자 <유치부 교사>

어디서나 전도하는 총현교인

= 6월17일 (세째주일)

전교인 노방전도 실시=

6월은 우리 교회가 정한 「총동원 전도의 달」이다. 이 총동원 전도의 달을 맞아 전도위원회에서는 전교인을 동원하는 전도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온 교회가 전도의 기운으로 충만한 가운데 전도에 힘쓰고 있다.

이 「총동원 전도의 달」은 8년전, 1968년에 미약한 남전도회(당시 회장: 조현명장로)를 부흥시키려고 「남전도회 가입 권유의 달」로 정하고자 착안한 것이 총현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전도회에 가입한다는 기풍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복음전파 운동에 총 결기하자는 「총현교회 총동원 전도의 달」로 진전시키게 된 것이다. 「전도의 달」 제정당시에는 그 달의 구역예배를 통하여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구역장은 남녀전도회(오늘에 이르러는 해외복음교회선 추가)가 입 안내에 주력하고 헌신예배를 제외한 평주일에 전도회가 가입 권면을 위한 예배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의 전도회 가입에 대한 타당성·필요성·긴급성등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시작된 「총동원 전도의 달」은 그후 민족복음화 운동, 전군 신사화운동, 만교회운동등의 교회 외의 복음화 운동에 발맞추어 더욱 의의를 갖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온 교인이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어디서나 전도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게 하고 있는 운동으로 변졌다.

금년의 「총동원의 달」은 계획·준비·실행과정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3일(첫주일), 주일에는 전도위원회가 주관한 저녁예배시간에 온 교인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교육원 대표인 장 익목사(성지교회에서시무)를 강사로 모시고 전도법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저녁예배에 참석한 교인에게는 전도용 팻지(직경5.5cm)를 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매 주일마다 주보에 전도지 2매씩을 끼워 넣어 교회에 오갈 때 꼭 전도를 하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한편 주일학교에서는 6월중 1회의 전도에 관한 특강을 별도로 가지며 유치장, 병원, 교아원등의 방문전도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6월 세째 주일에는 온 교인이 노방전도를 실시하게 된다. 각 주일학교에서는 전도구역을 정하여 교회 근처의 중부시장·목정공원에서 부터 장충공원 남산 서울역·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명동등을 주일학교 각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전도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같이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 힘써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복음화와 나아가 세계의 복음화 또한 북한을 비롯한 온 공산권예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시내전도)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국내전도)와 땅끝 (외국전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제 5 회

군중사병훈련 실시

전도위원회는 지난 5월14일부터 5월17일까지 OO 사단 지역 내의 군중요원 100명에게 군중사병 훈련을 실시했다. 매일 새벽 기도회, 저녁 부흥회 및 성경공부, 특강 및 찬송공부등으로 군중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군중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들로 짜여졌다. 이 훈련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이성복목사(부목사 청년부 지도) 김종석장도사(성가부, 산악전도교육부 지도), 이 손전도사(당회장비서)와 김성완전도사가 강사로 수고했다.

금년으로 5 회에 실시하게 된 이 군중사병훈련은 지난 1975년에 군전도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매년 실시하여 왔다.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하고 군중활동을 해야 하는 군중사병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영적 각성과 소명감등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3박 4 일동안 강사와 피교육자가 혼연일치하여 실시된 금번 군중사병훈련에 힘입어 금년내에 몇차례의 군중사병훈련을 요청받기도 하였다.

도서기증

지난 4월 30일에 취임·장립받은 교병옥·신현상·김경철·우기전·손동운·노광현 장로는 제21대 장로취임 및 장립기념으로 교회 도서실에 도서 45권(동서 19, 양서 26)을 기증했다.

무의탁사병 위로

여전도회 지난 5월27일 무의탁사병 50여명을 초대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주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는 기도원의 한영철목사가 설교를 하였다.



제8 회 농어촌교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

농어촌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훈련과 농어촌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실시하는 농어촌 교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이 7월 5일(목)부터 9일(월)까지 4박 5일간 총련 기도원에서 열린다.

성경학원이 주관하는 이 초청훈련의 대상은 제5회 농어촌 교역자 초청훈련에 참가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주교교사나 제직) 중 교역자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게 된다.

4박 5일간 숙식 및 교통비(현도)를 우리 교회가 부담하게 될 이 훈련에는 주로 우리 교회 교역자가 강의 및 훈련을 담당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참가 예상인원은 약 150여명이다.

교역자 초청훈련

이미 발표하여 모든 준비가

된 농어촌 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이 내일 18일부터 기도원에서 4박 5일(22일까지)간 열린다. 5월 말까지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것을 보면 전국에서 125명의 교역자가 신청하였는데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가장 많은 38명참가할 예정이다.

손경수 집사 총무로

지난 5월 25일 오전 11시 무역회관 특별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보수교단 기독교장년 협의회 제6차 정기총회에서 우리교회의 손경수 집사(월간총련 편집위원·대학부교사)가 총무로 선임되었다. 손집사는 현재 기독교신보의 편집국장 서리로 있다.

농어촌 교회

파송전도

8월13일-18일

1979년도 농어촌교회 파송전도가 오는 8월13~18일(5박 6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전도위원회가 주관하게 될 이 파송전도는 "내가 여기 있다"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주제성구 이사야 6:8 주계찬송 558장)로 8개처로 파송하게 된다. 금년에는 주로 본 교회 지교회들과 파송 대상 지역으로 삼아 그곳 주민 모두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여 해당 교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 주어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게도 된다.

파송될 전도대원은 7월중으로 3일간 전도훈련을 받게 된다.

교회 성경 암송대회 성료

162명 참가에 전장암송자만 30명 —

교인들로 하여금 항상 성경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 말씀대로 생활하는 말씀중심의 생활을 권장하는 뜻에서 지난 1976년부터 해마다 실시해 온 교회 성경암송대회가 올해도 지난 5월 27일 개최되었는데 대회개최이래 가장 많은 성도의 참가와 가장 많은 수의 전장암송자를 내어 한층 더 뜻 있는 암송대회가 되었다.

주일학교 학생을 포함한 전교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성경 암송대회의 범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서 모두 111절이었으며 어린이새신자부, 영아부등 모두 12개 반으로 나뉘어 실시되었으며 이번 대회에 특이한 것을 처음으로 영어암송반을 편성하여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였다는 점이 다.

에년이 비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하였으며 중등부 이상은 참여수에 있어서 에년의 수준을 크게 웃돌지 않았다. 참고로 각 부 참가인원을 보면 어린이 새싹자부 3명, 영아부 33명, 유년부



21. 중등부 8명, 고등부 6명.
 청장년이 34명, 노년부 10명, 영
 어 암송자가 8명등 모두 162명
 이며 진장암송자는 이형복·유미
 화·홍영숙·임인복·김홍준·김
 천채·박순애·조순자·김성숙·
 김성자·정숙자·김은선·한월남
 ·김진선·강영희·함명순·주윤
 자·한정미·박혜숙·백화순·송
 숙희·김중선·한연수·송기홍

배수진·한영석·박선자·조옥환
오석부·심영숙 등 30명이다.

이들 전장암송자와 각반 입상 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6월 3일 주일낮예배(4부예배) 시간에 있었는데 이번 암송대회에서 최고 득점자는 9반의 송기홍 집사로 밝혀졌는데 송집사는 575점 만점에 574점을 획득하여 거의 완벽한 암송을 하였다.

홍콩한인교회에서

대 중국대륙 방송전도

=연 200여만원이 필요해=

현재 중국대륙선교의 방법중 효과적인 방법이 방송선교이다. 근래에 들어 중국에서는 외부의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어 있고, 최근 중국본토에 방문해본 적이 있었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내에서 한국의 방송이 명확히 들린다 고 한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서구문명의 물질이 들어감과 아울러 영어 공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데, 이들에게 필요한 교파서나 교재

는 거의 없고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들음으로써 영어 학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전부터 홍콩한인교회에서는 대 중국방송전도를 전개하고 있는 중국인 선교단체에게 월 3만원씩을 보조함으로써 주 1회 마카오를 통하여 전도방송을 해오고있다. 그래서 이런기회를 이용하여 마카오에서 중국을 향하여 영어강화 방송을 성경을 내용으로 전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주1 회15분 영어강화 방송을 할 경우 연간 총경비가 230여만원(한화)이 든다고 한다. 이중에 절반만이라도 한국교회에서 부담해 준다면 이 일이 착수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있어야 되겠다.

김영삼 장로.

총재로 당선



지난 5월30일에 있었던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우리 교회의 시무장로로 시무중인 김영삼장로가 신민당의 총재로 선출됐다.

이날 김영삼 장로는 2차 투표에서 과반수에서 2표가 넘는 378표를 얻어 총재로 선출됐다.

김영삼장로는 1976년에 장로로 피택되어 1977년 5월에 우리 교회 17대 장로로 장립되었다. 김장로의 사모 손명순 원사는 현재

청년부의 부장으로 수고하고 계신다.

지금산장로 이민

우리 교회 시무장로인 지금산장로가 지난 6월 12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지난 1977년 4월에 장로 장립을 받고 우리 교회 시무 장로가 되신 지금산 장로는 10여년이 넘도록 성가대에서 봉사하여 오시며 성가대 총무, 성가대 대장등을 역임하며 성가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창준장로 소천

장로 장례식



우리 교회 시무장로인 이창준장로가 지난 6월 8일 오전 4시 숙환으로 별세하셨다. 고 이창준장로는 1970년 4월에 우리 교회 13대 장로로 장립되어 주일학교에서, 또한 재정위원, 교육 위원 등으로 충성되어 봉사하여 오셨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으로, 장년 새신자부 교사로 수고하신 고 이창준장로의 장례식은 6월 12일 오전 10시 교회장으로 교회내외의 많은 조객이 모인 가운데 행해졌다.

각 종 통 계

1979. 4. 1 (매월첫주기준)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버스편

- 매주 일 저녁예배 후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교회 앞에서 출발합니다.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천·여주 방면 완행버스를 (20분 간격) 타고 초월면 사무소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주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번을 거셔서「경기도 광주초월 14」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남	여	계	총세대수 3,218				
집배회교	예배	I부	188	359	547	신앙	교인	남	3,239	
		II부	411	910	1,321			여	4,341	
		III부	367	765	1,132			총수	계	7,581
		IV부	172	371	543				남	1,825
	주일저녁	삼	218	412	630	세례	입교	여	2,954	
		일	326	689	1,015			계	4,779	
	주일	어린이새신자부	30	42	72	교인현황	유아	남	302	
		장년새신자부	26	58	84			여	306	
		영아부	118	99	217		세례	남	416	
		유치부	130	134	264			여	387	
		유년부	169	180	349		교인	계	803	
		초등부	200	197	397			남	696	
		중등부	151	146	297		원입	여	694	
		고등부	144	144	288			계	1,390	
		대학부	88	88	176		원입	남	696	
		청년부	61	88	149			여	694	
		장년부	19	276	295			계	1,390	
		노년부	33	88	121			원입	남	696
	산교육부	60	63	123	여	694				
	새가정부	19	18	37	계	1,390				
	선교	부	20	50	70	원입	남	696		
		계	2,950	5,177	8,127		여	694		

6월의 행사



3일	정기제직회 · 산업전도회월례회 재정위원회
10일	남전도회 · 권사회 월례회 남전도회 헌신예배
12~16일	부흥회 (기도원에서, 강사: 최 훈 목사)
15일	교회전체 철야기도회 (기도원에서)
17일	여전도회 월례회 · 해외복음선교회실행 위원회 · 재정위원회
18일	교육위원회 월례회
20일	권사회 철야기도회
18~22일	농어촌교역자 초청훈련 (기도원에서)
24일	구역권찰회월례회 · 전도 위원회월례회 월간총현 편집위원회 월례회
25일	건축위원회 월례회
26일	정기당회

편집하고 나서

*...6월은 종동원 전도의 달로 온 교회가 전도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이처럼 전도의 달을 맞으며 우리 교회 전도활동의 이모 저모를 살펴 보았다. 특히 금년도에 중점 사업으로 애쓰고 있는 강원도 지역 개척 전도, 군전도등에 대한 현황등을 생각해 보았다.

연초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시간등을 통하여 강조하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협조해야 하고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지 등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좀 자세히 알고 우리가 할 바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북한선교회의 특공대훈련도 궁금한 일이고 그 진행도 궁금한 일이라 자취의 북한선교회의 특공대훈련에 관한 기사도 취급하게 됨을 다행하게 여긴다.

*...6·25가 만 29돌을 맞는다. 6·25를 맞으며 월간총현에서 몇가지 특별한 계획을 세웠었으나 필자의 사정상 계대로 되지 못함을 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차생장로님이 6·25를 맞으며 기독교인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을 써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린다.

*...더위가 점점 더해간다. 교회도 벌써부터 여름행사 준비로 분비고 있다.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면서 더 큰 결실을 기대해 보자.

* 1979년 월간총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지도 / 정상우
서기 / 고재원 회계 / 이형수
편집위원 / 정상우 이준교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박성수 손경수
오태용 이사래
주관 / 이준교 편집국장 / 이형수
간사 / 오태용 고재원

월 간 총 현

6월호

제 7 권 통권 제66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9년 6월 17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주 간 / 이 준 교
편집국장 / 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100-서울 중구 종로로 5가36

267-9937 · 9738



마귀는 존재하는지 ?

존재하여 믿는 자를 유혹

질문 /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지요 ? 마귀가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요 ? 등 마귀에 관해서 알려주십시오

1. 마귀는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악이 존재하고 더럽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생겨 나게 된다. 이것들을 생각 할 때 하나님 이외에 그와 반대의 성질을 가진 악령이 실재한다고 사람들은 추리하기에 어렵지 않게 된다.

여기에서 고대 신화에서 듣는 이야기들처럼 여전히 이원론적으로 선신과 악신이 서로 대등한 세력으로 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또 이것과는 달리 일원적으로 한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중의 하나가 타락하여 마귀(사단)가 되어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타락하여 다른 영들의 수령으로서 오늘날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저론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부합할 것이며 인간의 억측이나 상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재 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2. 마귀의 기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물(인간을 포함한 천사들)에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지으신 영물에게 강권을 발동하시어 무엇인가 한편에만 치우쳐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신 무한히 자애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의 범죄나 천사의 타락의 책임은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고 저들 스스로가 저야하는 것이다.

마귀의 기원은 곧 천사의 타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성경은 천사가 창조함을 입은 분 위치를 떠나 신분을 지키지 않으므로 추방되어 사단(반역자라는 뜻이 있음)이 되었다고 한다. (벧후 2:4, 유 6) 타락한 원인 즉 신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만(딤후 3:6)하게 하나님 보다 높아져 보려는 욕망 때문이었다고 본다. (사14

: 13~14 바벨론 왕을 사단의 상징으로 설명) 이것은 모두 신비에 속한 것이므로 제시진리 외에 인간이 연구해서 알아질 성질의 것은 못되는 것이다.

3. 사단의 사역에 관하여

마귀(사단) 곧 타락한 천사장 그 밑에는 수많은 악령들이 있고 그 활동은 매우 조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활동은 크게 제한을 받게 되었다. (요 15:8~11)

사단의 부하들 가운데는 이미 지옥에 던져진 악령들이 있으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악령(귀신)도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그 두령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되어 있다. (벧후 2:4, 유 6, 마 25:41, 계 12:7~12)

그 능력은 초인간적이지만 결코 하나님과 같지 않으며 유한하고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활동 한다.

하나님을 계속 반항하며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첫째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악을 조장한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육체적인 고통과 신앙적인 필박과 끊임없이 참소하는 일이다.

귀신들의 활동은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문란과 도덕적 불결과 이단교리의 유포와 점복술과 집신과 술령들등 가지각색으로 활동한다.

심지어는 이적과 기사도 행하는 일까지 있게 되리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 아래서 마귀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결과로 매듭짓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자는 조금도 두려워 할 것이 없다.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이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백 성 룹 목사 <본교회 부목사>

실로암
못가에서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곳에 진리를

희의가 자욱한데 믿음을

절망이 덮인곳에 소망을

어두운 곳에는 당신의 빛

슬픔이 있는곳에 기쁨을 전하는

사선이 되게

하소서

- 성 프란시스코 -